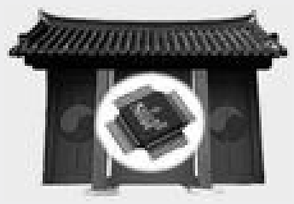
光州日報 제언

‘디지털 디바이드’를 없애자

〈정보 격차〉



“인터넷으로 자장면을 주문해 먹고,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아 본 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저녁에 만날 약속을 한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같이 인터넷이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계층별 정보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민의 상당수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위 디지털 배제 상태에 놓여있다.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도와 각종 경제 사회활동에서 인터넷의 활용도가 계층별·성별·지역·국가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디지털 격차는 지식기반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형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해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정보 격차’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러

정보격차 우리의 현실은

20대와 60대 차이 8배나
농어민 정보화 41% 최저
‘2080 격차’ 날로 가시화

◇**디지털 격차**=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초 발표한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말 현재 만 6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2.8%이며, 이용자 수는 3천301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격차가 큰 실정이다.

성별 격차를 보면, 남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78.5%로 여성 67.2% 보다 11.3% 높았다. 2004년 12월 대비 남성과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2.6%p 증가했지만 남,여의 격차는 수년 째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격차는 연령에서 나타난다. 6~19세는 78.5%, 20대 97.9%, 30대 91.0%, 40대 68.7%, 50대 35.7%, 60대 이상 11.9%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이하는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용률이 떨어져 60대에서는 10명 중 1명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대과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무려 8배에 달한다.

가구소득과 직업에 따른 차이도 크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인터넷 이용률이 28.5%에 불과했지만 400만원 이상인 가구는 90.1%로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으며, 직업별로는 학생(99.1%)·전문관리직(94.2%)·사무직(93.8%) 등이 9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였지만 생산관련직은 46.9%로 이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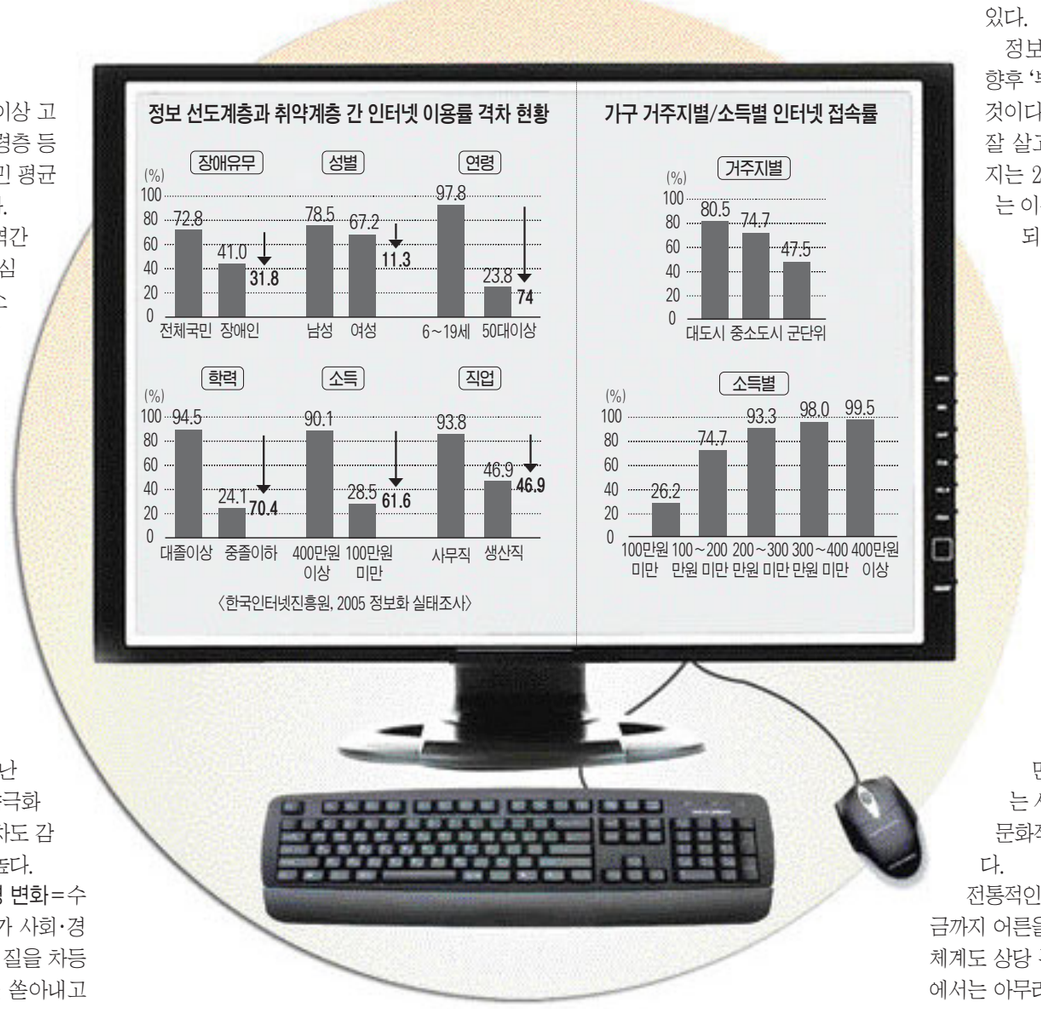
지역별(16개 광역자치단체) 인터넷 이용률은 울산이 8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주 77.9%, 경기 77.8%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발표한 ‘2005 정보격차해소 백서’에도 전체 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산정할 때, 농어민의 수준은 전체 국민의 41.7%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장노년층(49.3%), 저소득층(64.2%), 장애인(65.2%) 등의 낮게 나왔다. 반면 월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과 사무직 종사자, 20대 연령층 등 정보선도계층의 정보화수준은 국민 평균에 비해 29.9%가 높은 수준이었다.

이같은 정보격차는 세대간·지역간 뿐만 아니라 계층 간에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연령별과 학력별·소득별 격차가 수년째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 80세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컴맹‘의 비율이 높아져 연령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지난 1997년 IMF이후 진행된 사회 양극화 경향으로 인해 학력별·소득별 격차도 감소하기 보다는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신분을 결정짓고, 개인 삶의 질을 차등화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접근·이용 수준이 향후 ‘부’에 접근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정보화에 앞선 20%는 더욱 잘 살고 나머지 80%는 더욱 어려워지는 2080 사회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이른바 ‘지식격차 가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디지털 격차는 개인 간의 관계나 전통적인 가정, 관습, 다양한 생활행태도 바꿔놓고 있다. 의사소통이나 정보전달이 얼굴을 맞대고 이뤄지기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문화적·심리적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인터넷 초강국 불구
정보화 ‘빈익빈 부익부’
사회 통합 걸림돌 작용

전통적인 위계질서도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 어른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가정교육 체계도 상당 부분 변하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일지라도 하루가 멀게 변해가는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정보화 기기를 따라가는 것은 무리이다. 정보와 함께 자라는 자녀들에게 배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한국 진정 인터넷 강국인가?**=UN과 미 국행정학회(ASPA) 후원으로 미 뉴저지 럿거스주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세계 100대 국가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국내 16개 광역자치단체도 모두 세계 10위권에 드는 평가를 받았다.

또 광주와 전남은 ‘전자 정부’ 수준이 국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하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시들과의 평가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보다 높아 각각 세계 8위, 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인터넷 초강국임을 실감케 했다.

이번 평가는 성균관대와 뉴저지주립대가 전자정부 수준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인 보안·개인정보보호(18개 항목), 사용 편이성(20개 항목), 내용 구성(20개 항목), 행정서비스(20개 항목), 시민 참여성(20개 항목) 등 5개 부문 98개 항목에 의해 이뤄졌으며 100점이 만점이다.

세계 100대 도시 평가 순위는 서울시가 종합점수 81.70을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뉴욕이 72.71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상하이(63.93점), 홍콩(61.51점), 시드니(60.82점), 싱가포르(60.22점), 도쿄(59.24점) 취리히(55.99점), 토론토(55.10점), 라트비아의 리가(53.95점) 등 순이었다. 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부의 국가간 정보격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태 국정관리대학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장은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우리 나라 주요 지자체의 평가 점수는 세계 대도시 상위 10위권에 들 만큼 높은 수준이다”면서 “국가간의 정보격차는 매년 심해지고 있어 UN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 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분 실

아파트 분양계약서
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이파크 109동 602호
계약자명 김광희
상기 계약서를 분실 공고함.

土木職 幹部社員募集

當社는 下水管專門 製造業體임

1. 募集部門:幹部職 數名
2. 應試資格:
道廳, 市廳, 郡廳의 土木職에 多年間 勤務한 者에 限함
3. 待偶條件:年俸 1億원
4. 具備書類:
履歷書, 住民登錄등본
5. 銓衡方法:
書類銓衡, 面接
6. 書類 提出方法:(E-mai)
brtrsky 01@hanmail.net

東方産業株式會社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전력회사”

지중화공사안내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주변지역 가공 배전선로를 지중 배전선로 재구성함에 이에 따른 지중화 확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중화 공사목적
○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불편해소 및 노후불량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 소도읍육성사업 관련 지역특성화 상품인 양파와 한우, 갯벌낙지를 상징하는 양파한우거리 및 갯벌낙지거리로 정비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 기여
2. 지중화 확정지역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성남리 주변 및 무안읍 중앙로 주변
3.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 2005. 5월 ~ 11월 (7개월간)
4. 신, 증설 수용의 지중공급
○ 시행기준일 : 2006. 5. 21(신문공고일부터 31일째날 확정)
5. 고객안내사항
○ 시행기준일부터 전력 신·증설수용은 지중공사비가 적용됩니다.
○ 지중공급용 변압기에서 인출된 가공저압선로에서 공급되는 신·증설 수용도 지중공사비가 적용됩니다.
○ 재산한계점(수급지점)은 기존 가공인입선(인입구접속점)에서 지중인입선 (고객구내 인입구접속점)으로 변경됩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안지점(☎ 061-450-0232, 061-450-0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지중화공사로 인하여 시민여러분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4월 20일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장

KICOX

광주평동외국인투자지역 임대공고

■임대대상용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 번	①장록동 750-16	②옥동 881-17	③옥동 1234-3	④옥동 1234-16
대상면적	10,081.3㎡ (3,050평)	6,304.7㎡ (1,907평)	19,812.9㎡ (5,993평)	6,608.0㎡ (1,998평)

■임대가격

임대가격	▪ 임대료(월):50원/㎡(부가세 별도) ▪ 임대보증금:600원/㎡(1년분 임대료)
임대료 감면	▪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100분의 100감면) ▪ 투자금액 500만불이상 제조업(100분의 75감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임대보증금	임 대 료	비 고
계약체결시 전액납부	1년단위로 선납	1개월미만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함

■공통사항
1. 입주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타일반제조업:기계(29), 전기(31), 전자(32), 자동차부품(34), 광산업(광관련 업종등, 태양광.태양열.수소연료.2차전지등 제품), 비금속광물(26)
2. 입주자격
○외국인 단독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1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단, 임대면적의 한도는 3년이내 입주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임.
3. 입주우선순위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업종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업종(제2002-24호)
다. 지자체가 지정한 특별유치업종 등으로 관리기관이 인정한 업종
라. 위 가. 내지 다. 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마. 위 가. 내지 라. 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바. 위 가. 내지 마. 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4. 입주신청서류
가.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공장설립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부(공고)기간 : 2006년 4월 20일 ~ 5월 4일(15일간)
○접수기간 : 2006년 4월 20일 ~ 5월 4일(18 : 00한)
6. 입주대상자선정 및 입주계약체결
○입주대상자 선정 및 통지 : 2006년 5월 9일까지 개별통지함.
○입주계약체결 : 2006년 5월 10일 (1일간)

■기타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함.
○임대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정산하며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상호 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미임대용지 발생시 재공고없이 수의 계약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평동외국인투자지역 입주안내서에 의하며 입주신청에 착오가 없어야함.

■ 신청서교부·접수 및 문의처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광주하이테크센터 5F)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창업지원팀
☎ (062)970-4222, fax.(062)970-4229
○입주안내서 및 신청서 참고 홈페이지 http://gj.e-cluster.net

2006년 4월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